

사회복지정치세력화 전국 네트워크 구축

5.31 당선 축하연이후 전국협회, 활발한 활동 전개

지난 5.31 지방선거 당선 축하연 이후 지역별로 사회복지사출신 당선자와 현장사회복지사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활동들이 전국단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8월 8일 2006년 제3차 지방협회장단 회의를 갖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한 8명의 협회장 및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중앙협회의 활동사항 보고 및 각 지역별 활동사항을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각 지방협회의 활동사항 보고에 있어 단연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5.31 지방선거 당선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추진계획 등이다.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은 경남지역에서 지역별로 활성화되고 있는 소그룹 활동에 대해 소개하였다. 조성철 회장은 “진주시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스터디를 위한 소그룹을 구성하여 활발한 교류 및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김해시의 경우도 지방선거당선자-사회복지사 스터디 소그룹이 9월 중 구성될 예정이며 마산, 창원 지역을 포괄하는 지방선거당선자-사회복지사 스터디 소그룹도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하성도 부회장은 “당선자-사회복지사 간의 상견례를 추진하고 당선자-사회복지사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당선자들을 협회 정책자문단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주최 5·31지방선거당선 사회복지사 축하연

고 인천지역의 활동사항을 보고하였다.

또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윤동성 회장은 지방선거당선자-사회복지사 연결망 구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이영철 회장은 축하연 실시 및 당선자 및 지역 단체장에게 매달 ‘광주 Social Worker’ 잡지를 발송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각각 밝혔다.

특히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5.31 지방선거에서 5.31지방선거사회복지특별위원회를 결성, 서울시의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번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며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종우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은 지방선거 후 당선자를 위한 활동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사회복지사출신 당선자들의 의정 모니터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종우 부회장은 서울

시의 예산을 분석하고 틈새 예산을 사회복지분야로 끌어들이는 방안 모색하며 젊은 사회복지사들을 정치행동대원으로 육성해나가는 등 사회복지사 출신 당선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박서춘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황명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등도 5.31당선자와 현장사회복지사들과의 네트워크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그간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223명의 사회복지사 출신 당선자를 배출한 바 있다. 이후 축하연을 통해 전국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전국 16개 지방협회와 함께 당선 사회복지사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